# ‘로스쿨 탈락’ 조선대 소송 제기

## “법학교육위 구성 위법”… 오늘 교육부 상대 예비인가 거부처분訴

조선대는 11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본지가 사전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조선대는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법학교육위의 위법한 심의행위 ▲법학교육위가 행한 세부기준 변경의 부당성 등이 작용하는 등 교육부의 광범위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로스쿨설치·운영에관한 법률’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육위원에는 로스쿨 심의대상인 이화여대 신인령 교수, 경북대 김효신 교수, 전남대 정병석 교수,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임명됐었다. 조선대는 “이들 위원들이 소속 대학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대학 심의에 참여하는 한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법학교육위원들이 정원 배정도 사실상 결정했다”며 “한 대학의 증원은 다른 대학의 정원 축소로 이어지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선정이 국립대 위주로 이뤄졌고, 인원 배정도 법학교육위원들이 속한 대학에 유리하게 배정된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윤승용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조선대와 같은 권역의 원광대가 설치인가를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윤 전 수석의 발언이 거짓일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의 위험성이 있어 법학교육위 구성 및 활동에 광범위한 부정과 편법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지난해 10월 30일 로스쿨 설치와 관련한 세부기준 중 기존의 기준에는 없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요소가 강화된 것이 법학교육위원 소속 대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조선대가 언급한 기준은 ▲외국어 강좌의 개설 운영정도(10점) ▲여성교수 비율(10점) ▲최근 5년간 사시합격자 수(15점) ▲최근 5년간 법학부 졸업생 대비 법학부 출신 사시합격자 수(10점) 등이다.

조선대는 일부 대학에서 명문대 졸업자인 사시 1차 합격자를 학사편입시킨 뒤 학비와 학원비 등을 지급하면서 편법으로 사시합격자 수를 늘렸다는 점은 법적 신청절차의 하자이거나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한국형 자기 부상열차 형상 공개

건설교통부가 도시형 자기 부상 열차 실용화 사업을 통해 2012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행하게 될 최첨단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의 외부 형상 후보 3개를 공개했다. A형상의 특징은 기존 차량 형상과 유사하고 제작성이 용이하다. B형상은 한국도자기 곡선과 벌집구조를 형상화한것으로 공항 이미지에 맞는 편리한 좌석배치가 특징이다. C형상은 과감한 미래지향적 컨셉 및 승객의 넓은 시야 확보가 특징이다. /연합뉴스

## ‘엄마야 누나야~’ 越北 작곡가 안성현

# 고향 나주 남평서 재조명 움직임

### “지석강 연상 노래 작곡” 주민들 추모비 건립 추진

‘엄마야 누나야’와 ‘부용산’으로 유명한 작곡가 고(故) 안성현〈사진〉씨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씨 고향인 나주 남평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0일 남평읍 주민들에 따르면 국민 애창곡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는 남평읍 대교리가 고향인 안씨가 일제 강점기 김소월 시에 지석강변을 연상하면서 곡을 붙였다는 것.

주민들은 특히 안씨가 지석강의 솔밭 백사장을 연상하면서 우리 민족의 광복을 애절하게 희망하는 노래인 ‘엄마야 누나야’를 작곡한 만큼 노래의 모티브를 제공한 장소에 작곡가의 추모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추모비 건립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석강 치수사업’에 백사장을 복원시켜 그 곳에 추모비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서희열씨는 “안성현 선생이 나주인이요 남평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만큼 고향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추모비 건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그동안 월북 작곡가라는 이유로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2006년 4월 25일 86세로 타계했다는 사실이 북한을 통해 공식 발표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1920년 남평에서 태어난 안씨는 17세때인 1936년 부친 안기옥씨를 따라 함경도 함흥으로 이주한 뒤 일본 도쿄의 동방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귀국 후 광주사범학교와 조선대 음대, 전남여고 등에서 강의했다. 분단 후 50여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민족의 노래 ‘부용산’은 목포 항도여중 교사로 재직하던 1948년 작품이다.

한편 안씨의 유족으로는 부인 성동월(85·부산시 부산진구) 여사와 1남1녀가 있다. 처남 성경래(51·광주시 북구 연제동)씨가 안씨의 작곡집을 보관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국회의원 세비 7.5% 올렸다

### 월 520만원으로 책정

일반 공무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수당이 지난해에 비해 7.5% 인상됐다.

국회는 10일 ‘국회의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올해 국회의원의 월 평균 수당을 작년 대비 36만5천원(7.5%) 인상된 5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수당도 비슷한 비율로 올라 각각 월 867만1천원과 739만5천원을 받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전체의 보수조정 비율을 반영해 인상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받는 돈의 총칭인 세비는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일반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 웰빙형 한옥 보급 나선다

### 2012년까지 1,000동 신축

전남도는 올해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웰빙형 한옥 보급에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매년 220동씩, 1천여동의 한옥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또 영암군, 목포대와 공동으로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맞는 진화된 한옥 개발을 위한 흙 관련 산업 유치 MOU를 체결, 영암군 삼호읍 장전초등학교에 흙관련 연구소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올해 안으로 흙 관련 공장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옥 건립 단가를 낮추기 위해 국비 14억 원을 지원받아 장흥 우드랜드에 한옥 기술자를 양성하는 한옥학교를 내년 7월까지 세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빛日만평

- 김종두

호남엔 인재가 없더란 얘기

# 광주 하계U대회 해외 유치전 돌입

### 13일 유치신청서 제출 등 본격 활동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광주에서’ 광주시가 오는 13일 2013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 유치활동에 돌입한다.

광주시는 “오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본부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의사를 전 세계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앞서 박광태 시장과 이희범 유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회 유치단이 12일부터 벨기에와 스웨덴, 포르투갈, 스위스 등 유럽지역을 돌며 유치 활동에 들어간다. 박 시장 등은 에릭 세인트론드(Eric Saintrond) FISU 사무총장 등을 면담하고, 각 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를 방문해 광주 유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다음달에는 나머지 유럽지역과 아시아, 중동 회원국을 돌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3월 말~4월 초로 예정된 FISU의 현장 실사 등에 대비, 준비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는 5월31일까지 4~5차례 해외 유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17일 정·관계를 비롯한 체육, 문화,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214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꾸린데 이어 31일에는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회관 51층에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현재까지 2013년 하계U대회 유치 의향을 밝힌 곳은 러시아 콰간과 캐다다 퀘벡 등 5개국 7개도시. 유치위는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만큼 지구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무안공항 개항 3개월… 국제선 탑승률 70%

# 서남권 관문 공항 활성화 박차

개항 3개월을 넘긴 무안국제공항이 조기 활성화를 위해 국제노선과 국내노선 신설 및 증편, 화물 컨베이어 등 편의시설 확장, 주차요원 배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11월 8일 개항한 이후 중국·대만·일본·태국·필리핀 등 5개국 6개 노선에 주 38편의 국제선이 드나들면서 승객 2만9천332명·탑승률 69.9%·하루 평균 탑승객 376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제공항의 1월 평균 탑승률 70.3%에 근접하는 것으로 신설 공항으로서는 이례적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빠른 시일 내에 서남권의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안~홍콩 노선의 전세기(홍콩항공)가 3월 중에 취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무안~베이징 간 정기편(CA항공)도 4월에 취항 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무안~김포노선의 경우 1일 1회 왕복에서 2회 왕복으로 증편해 줄 것을 건의하고, 무안~제주 노선 신설을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한성항공’ 등과 협의하고 있다.

도는 또 빠른 입국 수속을 위한 국제선 도착홈의 화물 컨베이어 증설, 화장실 확장, 면세품목 다양화, 주차관리 요원 배치 등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訃 告

洪州宋氏 瑞海 宋 鈺(東陽交通·瑞鋼企業·順天中央病院 會長)以宿患二〇〇八年 二月 八日 午後 七時 五分(陰 一月 二日) 別世 玆以告訃。

發靷日時 : 二〇〇八年 二月 十二日(火) 午前 八時
發靷場所 : 順天中央病院 葬禮式場
葬 地 : 全南 潭陽郡 南面 先塋下

未亡人 崔 鈺順
嗣 子 宋 英洙 瑞鋼企業株式會社 代表理事 · 順天·光陽商工會議所 會長
英錄 株式會社東陽交通 · 株式會社梧桐運輸 代表理事
英雄 順天中央病院 · 順天第一病院 院長
英哲 行政自治部 副理事官 · 美國LA 領事
敬淑
敬姬 明知大學校 主任敎授

子 婦 高明善
鄭銀姬
金英子
徐芝善

婿 邊和錫 辯護士
魯萬壽 魯萬壽外科 院長

護喪 鄭尙允

連絡處 : 葬禮式場 (061) 743-3375/749-5044
順天中央病院 (061) 741-1001

(個別訃告 省略 · 弔花, 賻儀를 鄭重히 謝絶합니다.)

當社 創業主 瑞海 宋 鈺 會長님께서 宿患으로 二〇〇八年 二月 八日 別世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株式會社東陽交通 · 株式會社梧桐運輸
瑞鋼企業株式會社
順天中央病院 · 順天第一病院

本 光州鄕校 前 典校이셨던 瑞海 宋 鈺님께서 別世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光 州 鄕 校